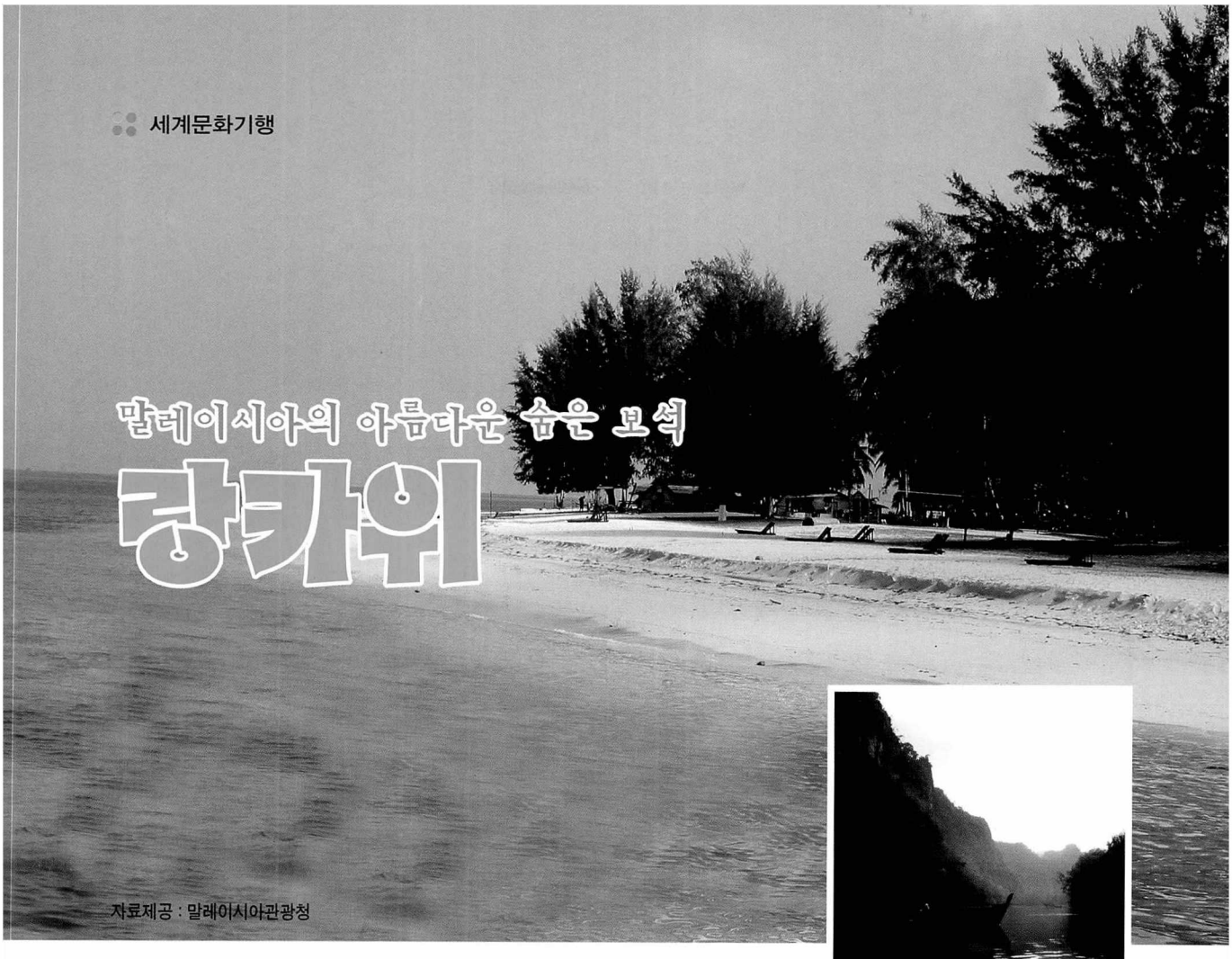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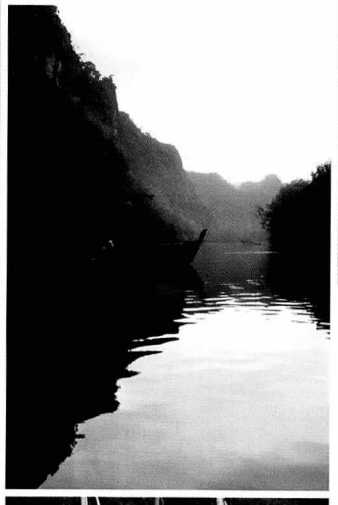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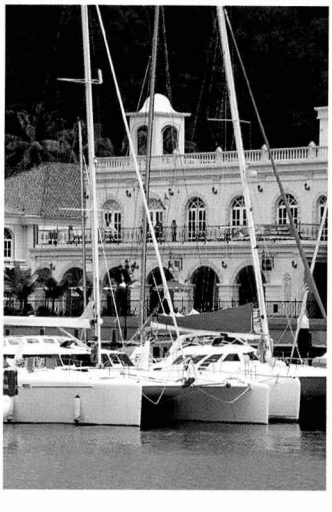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의 아름다운 숨은 보석

랑카위

자료제공 : 말레이시아관광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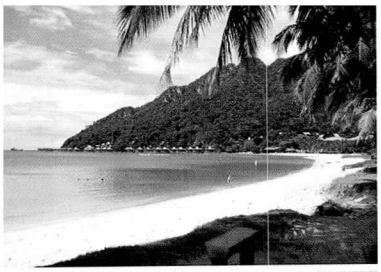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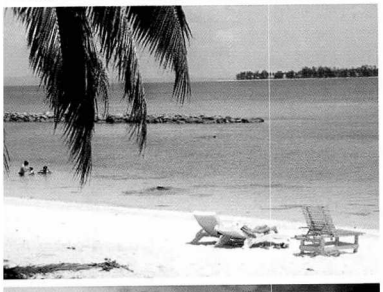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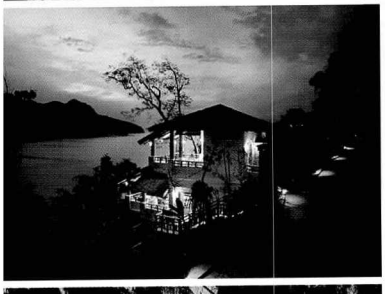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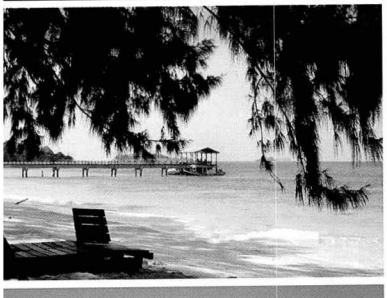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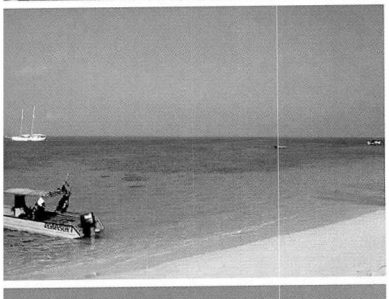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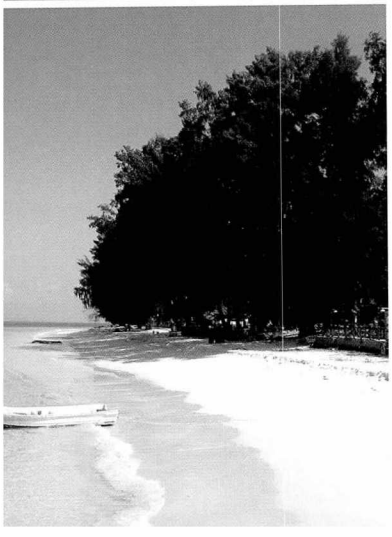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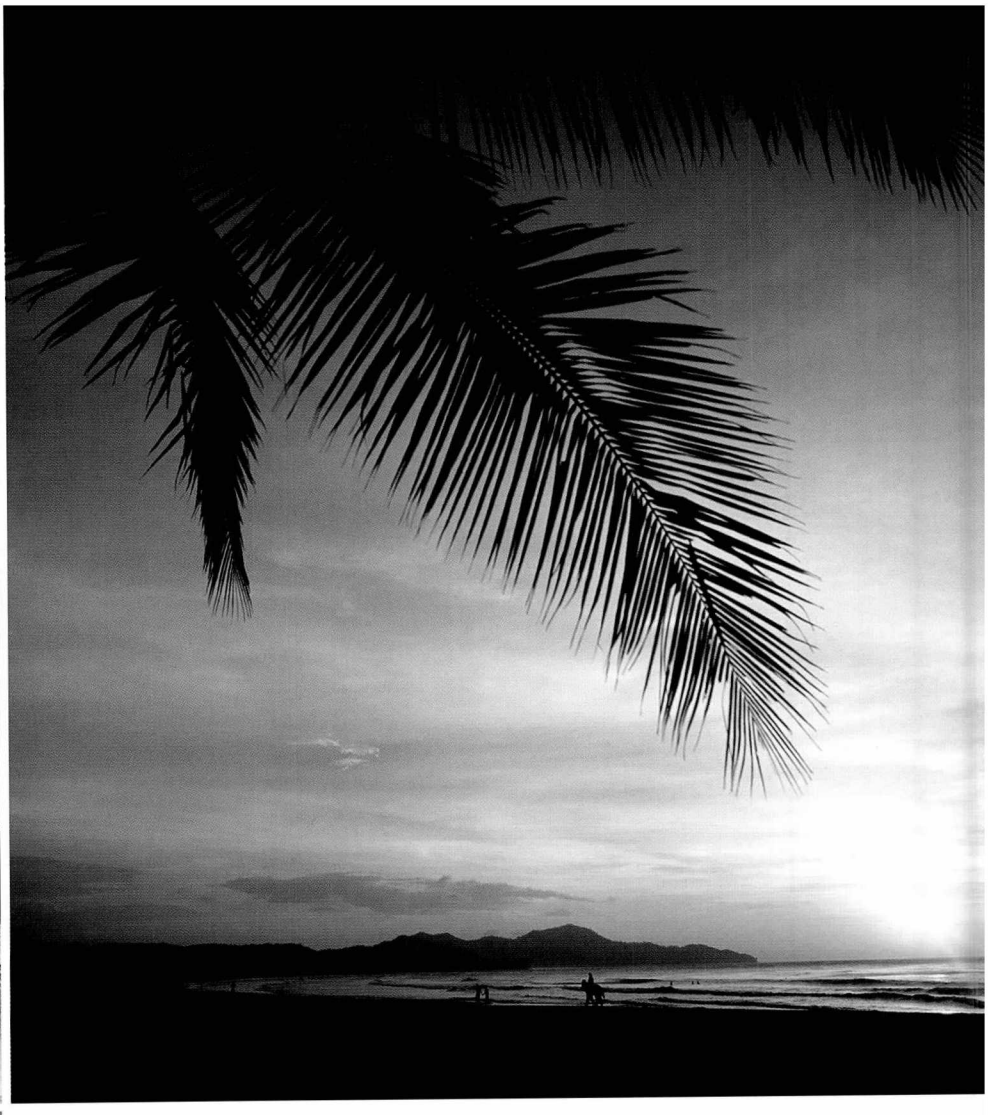




랑카위(Langkawi)는 아름다운 9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각각의 섬들은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전설과 신화 한 자락을 간직하고 있다. 산호빛 바다와 부드러운 백사장 위로 특급호텔이 들어서 있고, 순수한 자연이 가는 곳마다 손짓하는 랑카위는 에메랄드빛 상상력을 자극하는 완벽한 휴양지가 된다.

랑카위는 말레이어로 적갈색 독수리란 뜻이다

랑카위에서는 다양한 선택 관광이 가능하다. 랑카위 군도의 전설로 가득한 크고 작은 섬에서 아일랜드 호핑 투어를 하고, 악어 농장에서 악어쇼를 구경하는가 하면 저녁에는 아이르 항갓 마을(Air Hangat Village)에서 킥복싱, 뱀 쇼, 말레이 스턴트 쇼 등 각종 볼거리와 저녁식사를 곁들인 말레이 전통 민속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아이르 항갓' 은 '뜨거운 물' 이란 뜻으로 실제로 세 군데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천수를 볼 수 있다. 항아리에 온천수를 담아 판매하기도 하며, 이 물로 발 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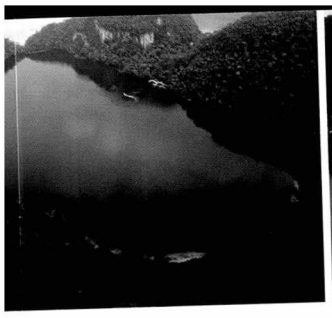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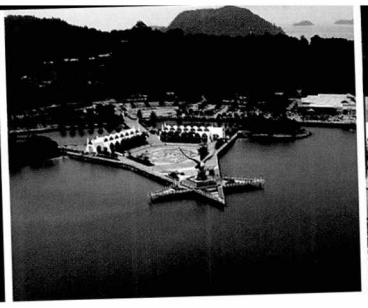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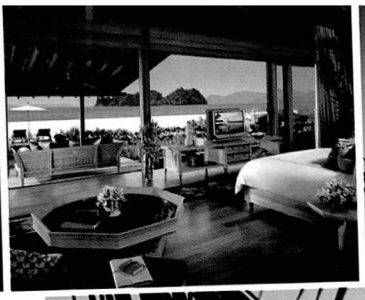
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이르 항갓 마을의 민속 공연은 오전 10시에 개장하여 낮 공연을 저녁 6시에 마치고, 저녁 8시부터 민속공연 디너쇼를 시작한다.

섬 전체가 면세 지역인 랑카위의 쇼핑 센터는 오늘날 현대적인 쇼핑 지역이 된 쿠아(Kuah) 시내에 몰려있는데, 화려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의 이 곳에서 세계적인 의류, 향수, 스포츠 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헤리티지 공예품 가게들이 자리잡고 있어 말레이시아 민속 공예품인 목각, 주석, 대나무 제품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다. 독특한 쇼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으로 바틱, 스카프, 코코넛 커피 잔과 국자 등 소재가 특이하다.

파당 마치라트(Padang Matsir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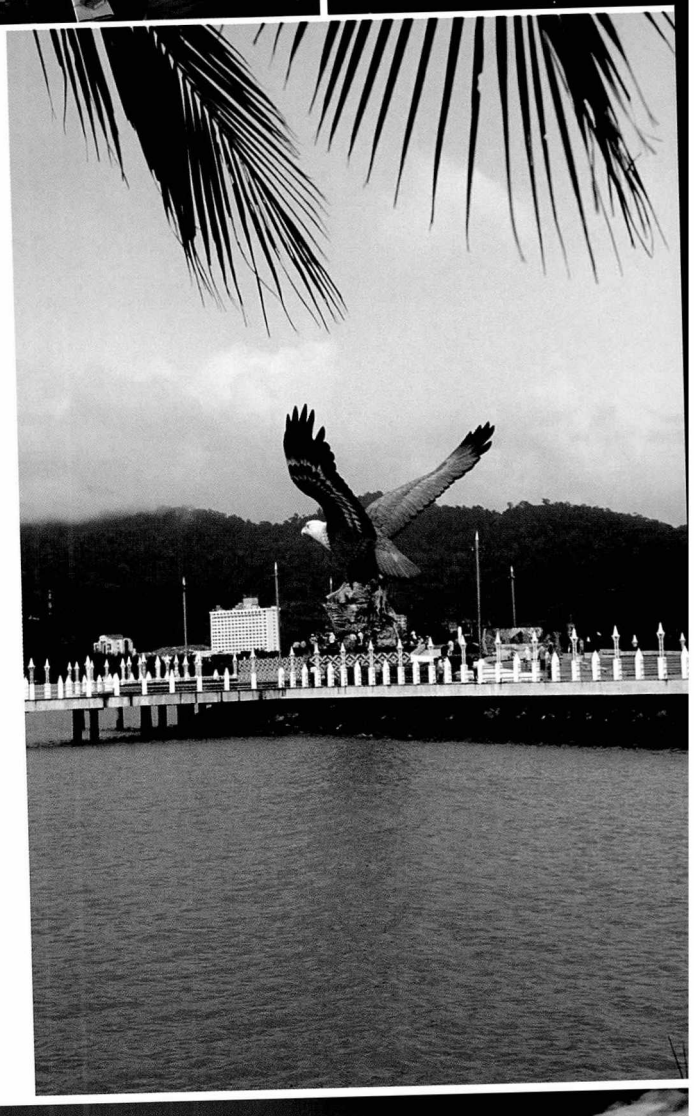
랑카위는 인도양이 말라카 해협으로 흘러 드는 길목, 즉 태국과 경계를 이루는 말레이 반도의 최북단 케다 앞에 위치하고 있다.

17세기 중엽 지금의 태국 영토인, 케다를 씨암의 군대가 침입하였다. 이 전쟁은 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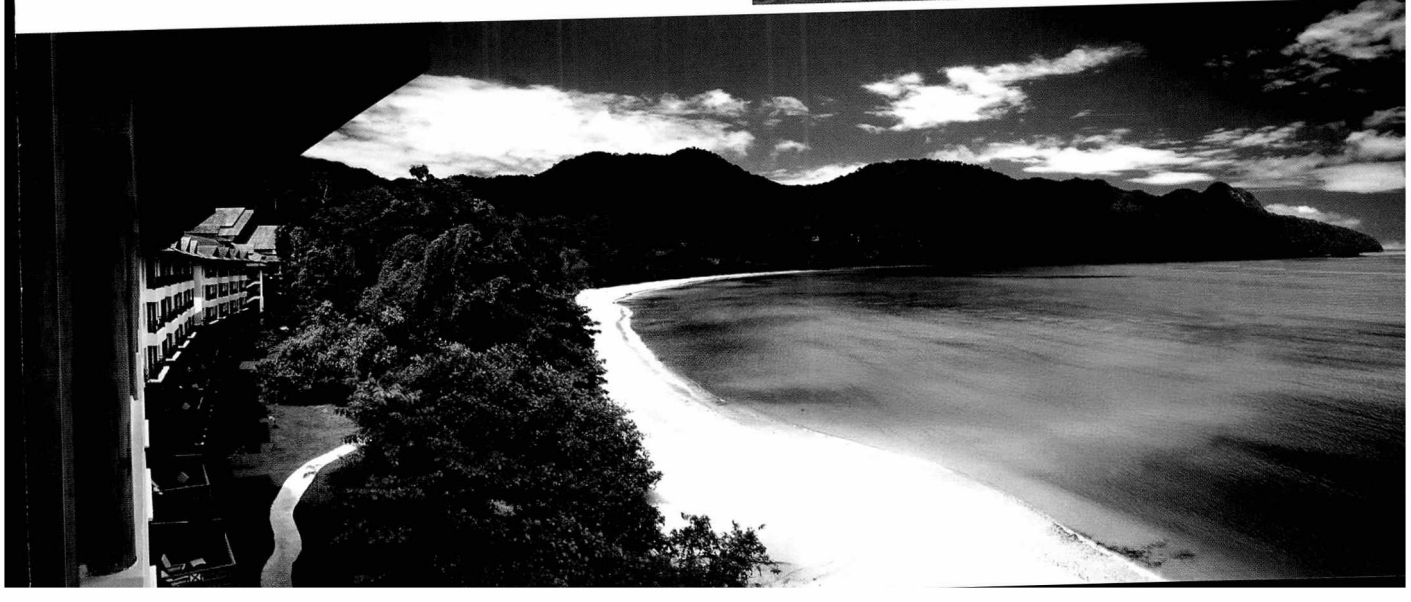
어려운 싸움이 되었고, 서로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 결국 씨암의 군대가 케다를 정복하고 랑카위를 공격하려 하자 섬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책을 마련했다. 그 당시 마을의 촌장은 섬주민들의 주된 양식이자 풍부하게 생산되던 쌀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창고에 감출 것을 명령하였다. 또 여러 개의 우물을 파서 독을 넣었다. 곧 씨암의 군대가 이 섬에 상륙해서 그들의 군량미를 충당하고자 쌀을 찾았으나 헛수고였다. 게다가 지치고 목이 마른 씨암 군사들이 우물물을 마시고 죽게 되자 섬주민의 속임수에 분노하여 전 마을에 대한 대학살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곡식 창고는 불타게 되었고, 쌀은 잿 더미로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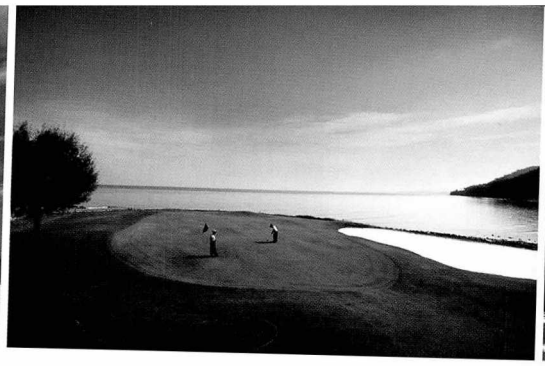
오늘날까지도 폭우가 내리면 불탄 쌀의 흔적이 베라스 테르바카(Beras Terbakar: 말레이어로 불탄 쌀을 의미)라는 곳에서 발견되며, 쟁카(Jengka)라는 마을에는 독 우물 중에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한다.



마수리의 무덤(Mahuri's Tomb)

2백여 년 전, 부당하게 간통죄로 사형을 당한 미녀 마수리의 무덤. 죽을 때 그녀는 결백의 증거로 흰 피를 흘렸고, 7대에 걸쳐 이 섬에 저주가 내릴 것을 예언하였는데,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해 온 섬이 결국 황폐화 됨으로써 증명되었다. 그 후 이 곳에는 카스터 나무(약품, 향수의 원





료)와 비둘기만 생존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참배자들이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곳을 찾곤 한다.

텔라가 아이르 파나스(Telaga Air Panas)

'뜨거운 물'을 의미하는 아이르 파나스(Air Panas)는 랑카위 지역의 온천을 의미한다. 오래 전 이 마을에 부자인 두 가족이 살았는데, 아들을 가진 한 가족이 딸을 가진 쪽에 청혼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딸 가진 가족의 마을을 침범하여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 소동으로 인해 물동이에서 쏟아진 뜨거운 물이 땅속에 스며 온천을 만들었다. 이것이 현재 랑카위 온천의 근원이 되었다.

플라우 다양 분팅(Pulau Dayang Bunting)

'임신한 처녀의 섬'이란 뜻을 가진 이 섬은 랑카위 군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며 비슷한 이름의 호수(임신한 처녀의 호수)가 있다.

이 호수에서 목욕을 하거나 물을 마시면 임신할 수 있다고 해서 아이를 못 낳는 부부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근처에는 구아 랑시르(Gua Langsir), 즉 '반시 동굴'이 있는데 높이가 91미터이며 박쥐가 자생한다.